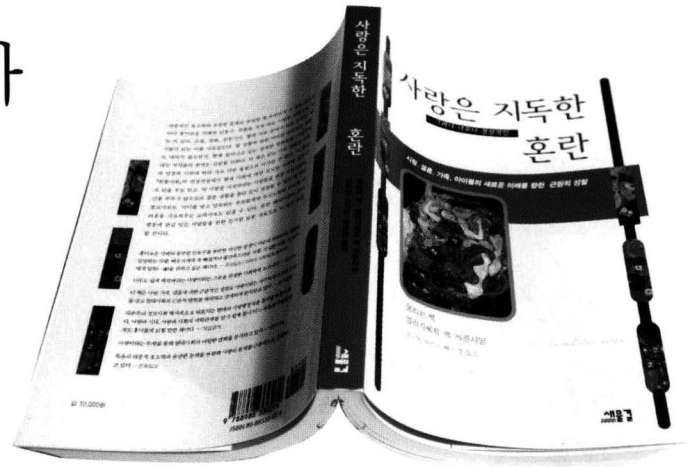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우리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

글 정윤희 기자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울리히 벡, 엘리자베트 벡-게른샤임 지음 | 강수영, 권기돈, 배은경 옮김
새물결 | 368쪽 | 값 10,000원

릭 베송 감독이 만든 영화 <제5원소>를 보면, 노학자가 지구의 미래를 바꿔 놓을 비밀을 밝혀낸다. 바로 피라미드의 벽에 새겨진 '5개 원소'의 비밀이다. 피라미드에 의하면 5,000년마다 세상이 바뀌고 악마가 찾아오는데, 이때 물·불·바람·흙을 상징하는 돌이 절대인간과 결합해 세상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예언처럼 미지의 제5원소를 제외한 네 개의 원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몬도샤 행성인들이 4개의 돌을 가지고 지구를 찾게 되고, 만갈로라는 우주 해적에 의해 격추되고 만다. 남은 것은 오직 몬도샤인의 한 쪽 팔. 과학자들은 이것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인간, 빨간머리의 소녀 리루를 만들어 낸다. 코벤은 이상한 고대언어를 말하고, 팔목에 네 개의 문신을 가진 이 묘령의 소녀를 영결결에 구해주게 되고, 위기에 처한 리루를 구해주는 과정에 청순하면서도 뇌쇄적인 매력을 가진 리루에게 조금씩 사랑을 느낀다.

개인적으로 공상과학 영화 류는 재미없어하는 편인데 릭 베송이라는 이름 하나 믿고 영화를 본 기억이 난다. 후회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영화가 말하는 '제5원소'는 사랑이다.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매우 간결하고 어떻게 보면 유치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역시 릭 베송 감독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영화였다. 과거에도, 먼 미래에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단 하나. 사랑이라는 것.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사랑. 사랑. 사랑.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시가 존재할까. 노래가 존재할까. 세상의 모든 시와 노래를 관통하는 건 사랑이다.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제목은 누구나 공감할 거라고 본다. 제목만으로도 정말 구미가 당기는 책이다.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스러운 경험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온갖 추상

적이고 화려한 수사로 사랑을 속삭이며 노래할 것이라고, 그래서 사랑하고 있는 나에게, 사랑에 지친 나에게 필요한 책이라 생각하고 이 책을 고른다면 잘못된 선택이다.

이 책은 사랑에 관해 매우 학구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보통 사랑은 감정을 교류하는 분야인데, 이 책은 매우 이성적인 눈으로 사랑을 논하고 있다. 이 책의 공저자인 울리히 벡과 엘리자베트 벡-게른샤임은 부부다. 남편은 독일 사회학자이며 유럽 좌파정치이론가이고, 아내는 유명 저널리스트이다. 저자 소개만으로도 이 책의 향방이 가늠되지 않는가. 독자의 끈기를 요구하는 책이 있다. 바로 이 책이 그렇다.

저자인 부부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질되고 진화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사랑은 늘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들에, 즉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습관들에, 그리고 나와 너의 초상과 이것이 은폐하고 있는 일반적 태도에 묶여 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속에 인격화되어 있는 물려받은 역할에 묶여 있으며, 그/그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서 새롭게 재등장하고 있는 역사와 정치의 힘에 묶여 있다"(287쪽)처럼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그 개념이 변질된다.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사랑은 일종의 암묵적 계약관계가 돼버렸다. "가족의 저항으로부터 계급적인 고려들을 거쳐서 돈이 없는 것까지"(181쪽)가 극복된다면 브론테의 <제인에어>처럼 진정한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우리는 성격이 딱 어울린다. 완벽한 일치."

사랑하고 있다면, 이 책을 읽기를 권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처럼. **★**